

## 대중문화 이론을 통해 본 복식 문화의 연구방법에 대한 연구

엄 소 희 · 김 문 숙\*

국립원주전문대학 의상과 부교수,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The Research in the Study Method of Fashion through Popular Culture Theory

So-Hee Eom and Mun-Sook Kim\*

Dept. of Clothing & Textile-Design, Assistant Professor of Wonju Junior Collage  
Dept. of Clothing & Textile, Professor of Seoul Woman' University\*

#### 目 次

Abstract	3. 한국의 대중문화
I. 서론	III. 복식과 대중문화
II. 문화연구의 패러다임	IV. 복식 문화의 연구 방법
1. 문화와 대중문화	V. 결론
2. 대중문화의 연구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study method in order to analysis the fashion phenomena in popular culture by popular culture theory. The method of this study is showed the method of fashion culture, after it was examined that the trends of popular cultural method, the type of Korean popular culture discussion, and the relationship of fashion and popular cul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following as :

1. Analysis of this study are structuralism stand and culturalism stand, and the application of criticism about the cultural technology in a new stand by means of the composition of Gramscic, A and Foucault.
2. Application of the ethnographic access method as anthropological approach method

about C. Geertz's culture. This is to describe and interpret the practice of subject through directive observation and conduct on a spot, thus is likely to be useful in the fashion study.

3. It needs a historical access method for that purpose, If it applicate Weber's methodology, it will have the use of both meaning interpretation and explanation of cause and effect on the basis of realistic conditions(historical data), and would appear that the peculiar appportunity of mental(cultural) progressional process became definitive explanation.
4. It must be made up of the discussion (which is) based on the durability of tradition and culture. It is undeniable that the discussion, which related to popular culture up to the present, showed the disconnectedness of the past tradition and culture, and naturally accepts it's connection to epistemology.

The cultural study is a theory interested in what it brings about, what way it's organized and what way it's used. The research of the fashion's connection to popular culture is composed of such topic : how fashion is produces, how it is consumed, and then, the proposition which is concerned in what meaning it produce is made up of. The regulation of the realm of this research will be to help a researcher explain where to begin and how to do it.

Although this cultural study method is more or less quantitative, or despite the expense of the accuracy of statistical analysis, this means that such method of cultural research needs to give attention to both aspects of phenomena and basic problems.

## I. 서론

새로운 자본주의 질서와 대중문화는 끈끈한 인연을 맺고 있다. 정보 산업의 발전으로 '지구촌락화'가 더 앞당겨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본주의의 형상은 이전의 독점 자본주의의 그것을 넘어서 다국적 기업이 국경에 상관하지 않고 정보 산업을 통해 우리의 생활 주위에 스며 들고 있으며 우리는 기꺼이 우리에게 전해진 정보를 일상안으로 끌어 들일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환경이 되어 버렸다. 이를 두고 '정보 양식(code of information)의 시대'라 말하기도 한다. 즉, 상징적 기호들을 매개로하여 의미를 소통하고 주체를 구성하는 방식이 주도하는 시대라는 것이다.

정보 형태인 대중 문화물들도 이미 상품화의 영역에 포섭되어 다국적 기업에 의한 문화, 다국적 기업의 횡포를 간파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문화를 연구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의 일상생활에 관심을 갖고 일상성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그들의 살아있는 문화 행위(lived culture)를 찾아 보자는 것이다. 즉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에 진행되었던 것과 현재 진행 중인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 정치적 행위, 생존전략, 저항의 원천을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즉, 문화 연구는 문화를 통해 어떻게 효과를 산출하고 그러한 효과가 어떻게 조직되고 사용되는지에 관심을 갖는 이론이다.

최근 문화연구에서 보여지고 있는 신세대 문화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그들의 문화적 의향이 파격적이거나 전세대와 달라서 생긴 것이 아니며 기괴함에 대한 호기심 때문도 아니다. 연구의 관심을 끄는 것은 파격적인 형식으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는 방식에 있다. 대중 문화물의 소비를 통해서 그들이 만들어 내는 사회적 의미들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만일 끊임 없이 신세대들이 즐기는 음악의 내용을 말하고 그들의 복식을 분석하고 은어의 내용을 연구하는 것만으로 마감한다면 신세대 문화와는 거리가 있는 연구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다. 즉, 그것은 외국 어디에서 유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문화적 모방일 뿐이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나 신세대는 그들이 즐기는 대중문화물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이 느끼고 있는 사회에 대한 그림을 그려내게 된다. 그들만의 언어 및 문화가 소비 안으로 끼어들고, 그럼으로써 대중문화물은 제작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것은 그 문화물이 많은 해석의 여지를 지니고 있었다기 보다는 젊은이들 사회의 문화적 방향이나 혼동이 수용 당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즉, 수용자들의 다양한 경험, 문화 등 때문에 텍스트(text)<sup>1)</sup>가 여러 의미를 내는 것이다.

본 소고의 목적은 우리 사회의 대중문화와 관련한 복식 현상에 대한 진단적인 평가를 하기에 앞서 우선 대중문화 속의 복식현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의 방법론을 제시, 정리하는데 있다. 그러기 위하여 기존의 대중문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인 틀을 살펴보고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자료들을 대상으로 그 유형을 분류해 본다. 그리고 1960년 이후 복식이 대중문화 이론과 관련해 어떠한 관련성을 이루어 왔는가를 살펴보고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문화연구의 패러다임

### 1. 문화와 대중문화

과거로부터 점차적으로 이루어진 문화에 대한 정의의 확장은 우리 생활 전반을 문화와 관련짓게 한다. 문화라는 용어는 먼저 영어권에서 '경작하고 양육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이러한 개념은 16C경부터 점차 추상적인 형태를 띠어 인간의 정신 가운데서도 세련되고 일정한 유형을 지닌 정제된 형태의 의식 등을 지칭하게 되었다.<sup>2)</sup>

여러 학자들이 정의하고 있는 문화를 열거해 보면, 첫 번째 정의로는 Raymond Williams가 설명하고 있는 "문화란 음악, 문학, 회화, 조각, 연극, 영화 등을 의미한다. 때로는 그것에 철학, 역사 등이 더해지기도 한다"<sup>3)</sup>와 같은 개념으로, 이 개념은 20세기에 들어 좀더 확장된다. 두 번째 정의로는 세련되고 순화된 형태의 인간의 정신, 의식 생활을 뜻하는 것으로 문화라는 개념에 고급문화 양식뿐만 아니라 대중문화 양식까지 여러 계급이 포함됨으로써 일종의 긴장 관계, 계급문화간의 갈등을 나타내기도 한다. 세 번째 정의는 계몽주의와 관련지을 수 있다.

- 1) 대중문화와 대중 문화물의 차이를 구분하는 일은 대중문화를 보다 광의로 해석하는 중요한 이론적 실천이다. 문화 산업 등 문화적 계도가 쏟아 내는 것들이 대중문화물에 해당하며 그러한 대중 문화물들을 흔히 문화적 텍스트 라고 부른다. 이것은 단순히 문화산업이 만들어 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문화 산업의 생산물을 통해서 소비자들도 의미를 생산해 낼 수 있다. 문화적 텍스트는 그 둘, 그리고 그 둘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 2) 원용진, 대중문화의 패러다임, 서울 : 한나래, 1996, pp. 16-17.
- 3) Raymond Williams, Keywords, London : Fontana, 1983, p. 87.

계몽주의는 역사의 전개과정을 목표를 향한 한 방향으로의 진전으로 보았다. 그 목표는 서구, 즉 유럽인들이 상정한 이른바 '문명화'라는 것이다. 즉, 사회의 발전과정을 야만에서 문명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타문명이 유럽식 문명으로 옮겨 가는 것을 계몽과정이며 문화적 과정이라 보았다. 네번째 정의는 유럽식의 문화만을 문화라 여기고 다른 문화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세번째 정의에서 탈피하여 복수적으로 파악하는 즉, '문화들(cultures)'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등장한다. 이것을 흔히 인류학적 정의로서의 문화라는 개념이다. 다섯번째의 정의는 네번째와 비슷하나 '문화가 무엇인가'보다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라는 상징적인 측면에 관심을 기울인 것이라 하겠다. 다섯번째 정의 속에서의 문화란 사물도 아니며(첫번째, 두번째 정의와 다른 점이다), 존재의 상태(세번째 정의와 다른 점이다)도 아닌 것으로 문화란 의미를 만들어 내는 실천을 연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의 정의 가운데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대중 문화론에서는 네번째와 다섯번째의 정의에 많은 관심을 둔다. 즉 문화의 내용에 대한 관심에서 문화의 실천에 대한 관심으로 전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전환을 통해서 문화의 역동성을 찾게되고 역사성을 인식하게 된다. 이는 문화를 고착된 것으로 파악하는 편견에서 탈피하게 해준다. 결국 문화를 새롭게 정의하면서 확장하려는 노력, 그러한 노력을 뒷받침해주는 여러 이론들의 발전이 한데 어울릴 수 있었다는 점이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맞물려 있다 하겠다.

대중문화란 용어는 영어의 Mass Culture 혹은 Popular Culture에서 비롯된 것이다. Mass Culture와 Popular Culture는 둘다 대중문화로 번역되는데, 그 둘의 차이점은 그 본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나 대중문화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에 불과한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R. Williams는 대중(the popular)이라는 개념은 네개의 다른 정의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저속한 것', '사람들의 호의를 끌기 위해서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 '민중 스스로에 의해 만들어진 것' 등등이다. 대중문화에 대한 정의는 이상의 대중의 개념과 문화의 개념이 어떻게 합해졌는가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형성한다.<sup>4)</sup> 가장 먼저 등장하는 대중문화의 정의는 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화라는 것이다. 시청률, 베스트 셀러, 유행 아이템 등 수용자의 머릿수와 관련된 수치들이 이 개념과 관련되어 있다.

두번째 대중문화를 정의하는 방법은 고급문화(high culture)가 아닌 문화로 규정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의가 지니고 있는 고급·대중문화의 판단 기준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수용자들이 손쉽게 즐길 수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우선 다수의 대중이 근접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우면 고급 문화의 영역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 부르디외(P. Bourdieu)<sup>5)</sup>는 문화적 차이(cultural distinctions)가 계급적인 차이를 나타내는데 쓰이고 있음에 주목하여 문화적 기호(cultural tastes)를 이데올로기적 범주로 파악하고 있다. 양문화가 소비되고 의미해 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대중·고급 문화의 구분은 미학적으로 보아 뚜렷이 구분되는 것이라고 본다.

4) 대중문화의 5가지 분류는 원용진, 앞의 책, pp. 316-321 참고.

5) P. Bourdieu, *Distinction :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R. Nice (trans),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세번째로 대중문화를 상업문화와 일치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것은 수용자층을 어떠한 특성으로 구분되지 않고 동질성을 지니고 있는 단순한 다수의 소비자로 여기며 분별력 없는 대중 소비를 바탕으로 대량 생산되는 획일화된 문화내용, 그리고 그를 통한 대중 조작 등이 이러한 정의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sup>6)</sup>.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제작자가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많은 획일화된 문화생산물들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할 소비자들에 의해 성공하지 못하거나 뜻밖의 작품이 인기를 끄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 상업문화로 보는 관점의 한 갈래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논의가 상업문화의 이데올로기적인 작용이다. 이 이데올로기적 접근법은 상업문화를 지배 이데올로기를 재 생산해 내는 이데올로기적 기제로 파악하여 수용자들은 대중문화안에 내재되어 있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수용하고 사회의 불평등이나 모순들을 잊게 되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네번째 정의 방법은 이상의 정의 방법과는 달리 대중문화를 민중들의 문화로 파악하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잘못된 정의들이 대중문화를 위로부터 민중에게 주어진 문화로 보는 잘못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는 이 정의에서는 대중 문화야말로 민중의 손에 의해 발생한 문화라고 반박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중문화는 민속문화 (folk culture)와 비슷한 성격을 띠게 된다. 그리고 때로는 현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노동계급이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좋은 기제가 되는 문화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sup>7)</sup>. 그러나 민중들의 손에 주어지는 문화의 원천이 바로 그러한 자본주의적인 문화제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완전 부정은 논의를 더욱 힘들게 만든다.

다섯번째 정의법은 대중문화를 경쟁의 결과로 파악하는 헤게모니 정의법이다. 헤게모니는 지배 계급에 의한 일방적인 지배라는 모습을 수정하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이다. 지배 계급 혹은 집단은 피지배 계급 혹은 집단의 동의를 바탕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며 그들은 끊임없이 그 동의를 바탕으로 자본주의 사회질서에 대한 도덕적이고 지적인 지도력을 행사한다<sup>8)</sup>. 그러한 지도력이 원만하게 행사되는 순간을 헤게모니라고 한다. 대중문화란 헤게모니와 바로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써, 헤게모니 싸움의 장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한 순간의 대중문화의 모습은 전체적인 헤게모니 과정에서의 한 단면에 불과한 것으로 역사적인 접근법을 통해 보면 지금까지의 과정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전개 과정에 대한 예측이나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그러한 역사적 흐름과 관련시킨 헤게모니적인 접근법은 대중문화를 본질적으로 보는 관점을 피하고 변화하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벌어지는 갈등이나 모순은 계급적인 축 이외에도 성, 지역, 환경 등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대중문화론이라 할 수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론에서는 계급을 중심축으로 하는 제반이론에 반대하는 성향을 내 보인다. 사회적 모순이나 그로 인한 갈등이 특정 사회적 요소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는 주장에 반대한다. 대신 사회의 여러 측면들, 즉 성적인 불평등, 환경문제, 지역문제 등의 모순들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현재의 많은 대중문화론자들은 그러한 통찰력을

6) Fiske, J., *Understanding Popular Culture*, London : Unwin Hyman, 1989, p. 31.

7) Hall, S., "Cultural Studies : Two Paradigms," in T. Bennett et al. (eds.), *Culture, Ideology and Social Process : A Reader*, London : Open University Press., 1981, pp. 19-37.

8) A. Gramsci(1971), *Selections from Prison Notebooks* Cedited and tromslated by & Hoare & G. Nowell-Smith), London : Lawrence & Wishart, 1971, p. 57.

높이 사서 계급을 중심으로 하던 대중 문화론에서 급진적 민주주의(radical democracy)를 마음에 두는 대중문화론을 펼치고 있다.<sup>9)</sup>

이상과 같은 대중문화의 다양한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은 대중문화의 등장 배경에 대한 이해이다. 대부분의 정의법들은 대중문화의 등장을 산업화와 도시화에 돌리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라는 배경이 대중문화 논의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은 대중문화 조건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대중문화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조건에 대해 무관심하면 대중문화 분석에서 정수(essence)를 잃게 되는 것이다.

## 2. 대중문화의 연구

Salvador Giner(1976)는 [대중문화는 문화가 아니다(Mass culture is not culture)]라고 대중문화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지적하였으며, 맥도날드는 대중문화를 [씹는 껌(chewing gum)]에 비유하였다.<sup>10)</sup>

대중문화는 우리가 오랜 세월동안 향유해온 문화와 같이 생성 변화를 거듭해 온 문화가 아니라 그러한 문화의 부산물로 출현하였으며, 또 저급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경멸하기도 한 말이다. 이러한 대중문화의 연구동향의 개요를 정리하기 전 가장 큰 하나의 전제는 [대중문화도 문화이다]라는 사실이다. 그 기원이야 어떠한 인조적이며, 가치 문제가 개제되는 점은 리케르트의 견해처럼 문화로서 인정받을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중문화의 연구의 경향을 볼 때 순수문화의 연구에 비하면 산발적이며 T. Bennett가 지적<sup>11)</sup>한 것처럼 그 체계화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없지 않다. T. Bennett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제별 연구가 용이할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대중문화의 영역에 있어서 활기를 띤 영역이라면 매스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기능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다.

대중문화의 연구에 있어서 어떠한 대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어떠한 전개방법을 도입하고 있으며 어떠한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연구 주제와 지리적 분포를 염두에 둘 때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주류로 분류가 가능하다.<sup>12)</sup>

첫째는 서구에 있어서 전통의 몰락과 함께 등장하는 대중을 대상으로 비판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영국의 아놀드(Mathew Arnold)와 엘리엇(T. S. Eliot), 독일의 슈펜글러(Oswald Spengler)등을 들 수 있다. 전통성의 몰락이 결국 인간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둘째는 프랑스 혁명을 전후하여 서구에 일기 시작한 산업화·민주화와 함께 개인의 정치 참여 등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시도한 르봉(Gustave Le Bon), 콘하우스(William Kornhaus), 오르테가(Ortega Y Gasset), 프로이드(Sigmund Freud), 브라운(Roger Brown), 톤니스(Tonnies) 등을 대표적인 학자로 들 수 있다. 이들의 주요 연구과제는 대중의 집단행동과 사회와의 역학적 관계의 규명이다. 제보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1900년에 노

9) T. Bennett, "Introduction : Popular Culture and the Turn to Gramsci," in T. Bennett et al. (eds), *Popular Culture and Social Relations*, Milton Keynes & Philadelphia : Open University Press, 1986, p. xv-xvi.

10) Salvador Giner, *Mass Society*, Academic Press, Inc. N. Y., 1976.

11) Tony Bennett, Michael Gurevitch, James Curran, and James Woolcott, *Culture, Society and the Media*, Methuen, London, 1982, p. 32.

12) 박기성, *대중문화와 문화산업*, 서울:평민사, 1992, pp. 19-21 참고.

벨상을 수상한 독일의 카네티 (Elias Canetti)의 경우도 이러한 범주의 주제 연구로 간주할 수 있다.

셋째는 미국의 대중문화론 연구경향으로 1930년대에서 1950년대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 미국 자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앞의 두 계열이 모두 학자·시인·문예비평가·사회사상가 등 여러 영역의 출신으로 연구에 참여한 경향이 많은 반면, 미국의 경우는 사회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실증적 방법에 의한 연구가 시도된 점이 특색이라 하겠다. 대중매체(메스 미디어)를 변인으로 한 연구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역대 연구자들을 보면 맥도날드 (Dwight Macdonald), 로젠버그 (Bernard Rosenberg), 하그 (Ernest Van den Haag), 갠즈 (Herbert Gans), 벨 (Daniel Bell), 토크빌 (Alexis Tochville), 영국의 쉴즈 (Edward Sh-ils), 핸들린 (Oscar Handlin) 등이 있다.

넷째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학자들로 독일 나치스를 중심으로 한 전체주의의 성격을 띤 연구이기는 하나 사회주의의 이론을 답습하여 마르크스적인 전개방법을 쓰지 않고 스타달이 말하는 「행복의 약속」이라는 전제 하에서 변형적인 연구를 시도한 경우이다. 이들은 대중문화를 문화산업 (cultural industry)의 차원에서 해석하였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호르크하이머 (Max Horkheimer), 만하임 (Karl Manheim)을 비롯하여 특히 아도르노 (Theodor W. Adorno), 벤야민 (Walter Benjamin), 로웬탈 (Leo Lowenthal)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1940년대에 접어들면서 독일을 떠나야 했었고 로웬탈이나 아도르노, 벤야민 등은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학자와 대중문화 연구에 힘을 기울였다.

다섯째는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하는 전체주의적 관점에서 말하는 대중문화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 주제로 삼는 대상은 노동 대중과 그 심리적인 역학관계를 연구하는 일파들이다.

이상은 구미를 중심으로 한 학자의 연구동향을 기초로 하여 살펴보았다. 구미 학자들의 경우, 보편화된 견해로는 대중의 출현은 시대적으로는 프랑스 혁명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 통례이나 학자에 따라서는 로마사대를 기원으로 잡는 경우도 있다. 또 하나의 공통된 점은 20세기와 함께 대중매체의 보급이 대중문화 형성에 크나큰 변인이 되었다고 보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

### 3. 한국의 대중 문화

한국의 대중문화를 설명하고 전개할 때에 단 한가지의 변인 만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복합적인 변인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래서 한국의 대중문화를 유형화하는 작업은 학자들의 이론이 어떠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나 하는 의도에 맞추어 유형의 개념을 명명하였다.<sup>13)</sup>

#### 1) 외래 문화형

외래문화형이라 함은 한국의 대중문화를 외래문화의 차원에서 설명한 학자들의 견해이다. 외래문화란 외국으로부터 전래되어온 문화를 말함인데 문화수용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도문화(dominant culture)의 입장이 아닌 수용문화(receiving culture)의 입장에서 전개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한국의 대중문화 또는 그러한 현상은 외래문화로부터

13) 박기성, 앞의 책, pp. 295-324 ; 강현두, 한국의 대중문화, 서울:나남, 1987 참고.

기원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외래문화라는 조건하에서도 그 쟁점은 다소 차이가 있어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되어진다.

첫째, 국민문화를 대중성과 순수성이라는 이원적인 차원으로 보고 외래문화인 구미문화의 표면적인 생활화를 대중성의 차원에서 접근 해석한 경우(제1형)이다. (최재서, 1936) 둘째는 구미의 대중문화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대중문화가 한국 대중문화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견해(제2형)이다. (김영모, 1968 ; 김경동, 1968) 셋째는 미국 중심의 대중문화와 일본 대중문화까지도 한국 대중문화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견해(제3형) (이상희, 1980)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제1형은 일제의 대정 말기로부터 이어지는 약 15년 기간동안 당시의 한국 사회에서 일어났던 표면적인 구미문화의 모방경향을 문화의 분열현상으로 지적하면서 문화를 그 속성에 따라 순수성과 대중성으로 구분하여 해석한다. 순수성으로서의 문화의식은 지식인이 추구하며 문화생활로서의 대중성은 대중이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제의 명치유신 이후 일시적인 구미문화의 도입은 일부 경박한 자에 대하여 문화의 비속화와 함께 전혀 문화혜택을 못받는 대중으로부터는 외면을 당한 채 표면적인 답습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sup>14)</sup>

이 주장은 오늘날 구미의 대중문화론에서 전개되는 대중이나 대중문화, 또는 현재의 한국의 사회에서 거론되는 대중문화의 개념과 비교할 때 당시의 문화적 현상을 대중문화로 규정하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대중이라는 차원에서 문화가 평가되었다는 점에 그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겠다.

외래문화형 제 2형의 특성은 한국의 대중문화가 다분히 외래문화의 수용에 기인하고 있다는 요지로 전개한 대중문화론으로 김경동, 김영모는 한국의 대중문화를 문화이식의 차원에서 설명한다. 한국의 경제변화나 사회변동이 다분히 문화이식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대중화 역시 외래문화로부터 영향을 입었다고 설명한다.<sup>15)</sup> 그러나 그것은 아주 피상적이기 때문에 서구 사회처럼 사회전체 구조면에서 대중화 현상이 일어났다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에서 대중문화와 함께 (a)매스미디어의 영향력 확대와, (b)외국의 저속한 작품 키치(Kitsch)을 그대로 모방하여 저속화를 조장하는 대중문화 생산자의 소극적인 태도와, (c)여기에 착취당하는 소비자가 그 생산자에게 맹목적으로 착취당하면서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실을 예측하고 있다. 대중문화를 외래문화 전래형태인 문화이식의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주장의 특성은 대중을 양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점이다. 이 점은 오르테가 가세트가 군집(multitude)과 포만치(plentitude)의 관점에서 해석한 대중과 유사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외래문화형 제 3형의 특성은 앞의 두가지 외래문화형 대중문화론 전개와는 다르게 한국의 대중문화 현상 형성에 두가지 크나큰 요인이 작용된 바 그 하나는 외적인 요인으로서 미국 대중문화와 일본 대중문화로부터 영향을 받는 외래문화적인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한국문화의 내부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대중문화 현상을 문화충격(cultural shock)입장에서 설명한다. 예를 들면 '1945년 해방이란 정치충격', '강력한 외래문화의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14) 최재서, '전행기의 문화이론', 「인문평론」, 서울 : 인문사, 1936, pp. 18-20.

15) 김영모, 한국문화와 권력구조, 「사상계」, 서울, 사상계사, 1968. 5월. ; 김경동, 대중사회와 대중문화, 「사상계」, 서울 : 사상계사, 1968. 5월, p. 125.



등에서 충격으로 다루고 있음<sup>16)</sup>을 찾아볼 수 있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1945년 해방과 함께 미국의 정치 문화권이 한국에 까지 확장되어 오면서 미국사회가 가지고 있던 대중사회적 상황이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며 다른 하나는 1965년에 한·일 회담 타결이후 국교 정상화로 경제적 관계까지 밀접하게 되고, 일본의 문물, 사회 풍조 등이 대량으로 들어오고 이러한 조류에 따라 일본이 형성되었던 대중사회적 상황이 한국에 유입되기 시작한 사실이다. 내부적 요인으로는 1960년대 후반부터 추진되어온 산업화 과정을 지적한다. 한국의 산업화가 서구의 그것과 다른 점은 서구의 것이 자연발생적이고 역사적인 길이를 두고 있는 반면 한국의 산업화 과정은 인공적이며 무리한 계획의 추진으로 빈부의 격차, 사회의 아노미 등의 현상을 유발시키고 언론매체로 성격전환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sup>17)</sup>

이러한 견해는 대중문화 현상에 대하여 비판적인 관점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갠즈의 견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 2) 산업사회형

칼 도이치의 사회적 동원이론<sup>18)</sup>에서와 같이 산업화가 대중의 출현을 촉진시킨다는 이론이다. 산업화가 사회동원을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지리적으로 폐쇄되어왔던 사회로부터 외계의 세계로 이동이 있게 되었다고 본다. 지금까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심리적으로 문화적으로 폐쇄적인 사회단위 속에 정체되어 있던 상황에서 새롭게 개방되어 지리적 이동, 직업이동, 도시화, 사회적 이동, 상업화, 공업화, 관료화, 그리고 문자 해독율이 상승하게 되고 기대와 욕구가 증가하게 된다. 산업화가 가져온 이러한 변화를 임희섭은 '대중화 현상'이라고 부른다.<sup>19)</sup>

대중의 출현 및 이들의 가시적인 참여활동은 대중문화의 형성을 촉진시킨다. 그래서 대중문화는 대중출현 이후의 문화로 해석한다.<sup>20)</sup> 대중문화는 전통사회의 서민문화와는 구별되며 민족적 요소보다는 오락적 요소를, 저항적 요소보다는 동조적 요소를 더 많이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귀족문화가 서민문화와 대치되는 반면 대중문화와 대치되는 개념은 고급문화가 아닌 엘리트 문화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고급문화는 초기 대중사회 비판론자들이 대중사회의 등장을 경계하고 전통적인 귀족문화의 중요성과 기능을 강조하면서 귀족문화의 복귀를 주장하기 위해서 사용한 용어이다. 이와 같은 문화관계를 도식화하면 <표 1>과 같고 엘리트 문화

<표 1> 귀족문화와 상민문화 및 엘리트문화와 대중문화의 관계

전통사회	귀족문화	서민문화
산업문화	엘리트문화	대중문화

16) 이상희, 대중문화에 대한 문명 비판론적 연구, 「한국의 사회와 문화」, 서울:한국정신문화연구원, pp. 6-15.

17) 박기성, 앞의 책, p. 306.

18) 산업화가 대중의 등장을 촉진시킨다는 현상을 칼 도이치는 사회적 동원이라 불렀다. 사회적 동원이란 과거의 사회관계, 관습, 욕구, 기대 등이 해체되고 새로운 사회관계, 관습, 욕구 등을 받아들이는 모든 변화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임희섭, 1975:376).

19) 임희섭, 대중문화의 사회적 의미, 「문학과 지성」, 서울: 일조각, 1975 여름(제6권 2호), p. 378.

20) 박기성, 앞의 책, p. 309, : 임희섭(1975), 앞의 책, p. 378.

<표 2> 대중문화와 엘리트 문화의 차이

	엘리트 문화	대중 문화
(1) 수요자	엘리트 공급은 선택적	대중공급은 비선택적
(2) 내용	지적·심미적·관념적	실용적·도구적·감각적
(3) 형식	논리적·체계적·이론적	감각적·직접적·선동적
(4) 매체	전문지·전문서적	매스 미디어
(5)공급자가 추구하는 가치	창의성·창조성	인기·물질적 보상
(6) 사회적 결과	개혁	동조

(출처: 박기성, 대중문화와 문화산업, 평민사, 1992)

와 대중문화의 특성을 <표 2>와 같이 비교 분석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한계적인 조건이 수반된다. 대중문화와 엘리트 문화는 연속적인 것이며 그 차이는 상대적이라 보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중문화와 엘리트문화의 차이와 유사성은 사회에 따라 달라지며, 그 기능면에서도 수요자의 대상, 추구하는 가치와 형식, 매체, 사회적 결과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 3) 매스 미디어형

197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한국의 대중문화를 설명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언급되어온 대중문화론이 바로 대중매체의 보급 및 수용을 중심으로 대중문화론을 전개하는 경우이다.<sup>21)</sup>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라디오, 텔레비전, 잡지 등 매스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대중문화라고 말할 때, 또는 일상생활에서 대중문화라는 말을 쓸 때는 거의 대중매체 중심의 문화 언급으로 인정될 정도로 상용화 되고 있다.

이 주장은 1970년대에 현저하게 나타난 현상으로 문화폭증(cultural explosion)의 현상과 대중적 여가(mass leisure)를 지적한다. 문화폭증의 단서로는 대중의 문화적 욕구가 늘어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고급문화 내용이나 문화항목들이 대중화되면서 그 상업성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는 경향을 보인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한국 대중문화는 한국사회에 있어서 라디오, 텔레비전, 주간지 등의 매스미디어 보급으로부터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출판, 문화폭증의 기미, 대중적 여가, 한국형의 철도문학, 고속도로 문학 등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sup>22)</sup>

이러한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연구는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의 전통문화와 그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전혀 이질적인 외래의 대중문화가 한국사회에 이식됨으로써 전통적 가치나 규범체제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과 대중문화가 공중의 취향을 저하시킨다는 점이 문제의 범주이다. 그러한 대중문화의 질적 저하의 원인은 한국의 전통문화 요소들이 깊이 음미되거나 검토되지 않고 흥미 위주로 다루어지거나 대중문화의 생산자가 자

21) 매스 미디어의 보급을 중심으로하여 대중문화론을 전개한 대표적인 보기로는 1974년 강현두, 유계천, 이근삼의 「현대사회와 대중문화」를 비롯하여 1975년 중앙일보를 통하여 「한국의 대중문화」라는 지상심포지움과 현장 실무에 참여하는 다수인이 전개한 대중문화론, 1978년 김현의 「대중문화의 새로운 인식」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22) 박기성, 앞의 책, pp. 312-313.

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향, 그리고 우리의 대중문화가 외국의 문화현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대중은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상품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위치에서 있음에 틀림없으며 대중문화의 질적 수준은 이러한 문화의 전달자와 소비자 차원에서 결정되게 된다. 따라서 대중문화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및 문화산업은 미래를 지향하는 기본입장에서 서서 한국 문화의 세계적 보급을 위해서 전통문화 요소 중 가치반응이 있는 내용을 생산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젊은 층의 외국문화 수용에 대하여서도 긍정적인 입장에서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4) 혼합형

혼합형이라 함은 한국사회의 대중문화 출현에 있어서 작용한 요인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는 입장이다. 말하자면 외래문화, 산업화, 매스미디어의 보급, 민주주의의 교육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하여 성립되었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러나 학자에 따라 관점이 다소 다르고 주장하는 바도 다소 다르다. 원우현은 대중문화 현상은 근대적 공업의 발달로 말미암아 도시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서구문화의 영향을 받아 분업화, 산업사회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단계까지 된다고 설명한다. 특히 한국 사회와 같은 개발도상국가에 결국 그러한 서구 대중 문화 중심의 선진국의 문화를 수용할 경우, 그 핵심은 결국 서구의 산업화와 함께 이루어진 중산층 문화의 수용이 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가는 결국 그러한 서구 대중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sup>23)</sup> 즉 전통의 맥락과 단절된 외래문화의 이식으로 형성된 문화로 해석한다.

이강수는 한국에 있어서 대중사회적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 일반대중이 읽고 쓰고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부여되고 의무교육의 보편화와 매스미디어의 대량보급,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사회의 산업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한다.<sup>24)</sup>

또한 한국의 대중매체를 통하여 전달되는 대중문화의 내용은 진정한 의미의 대중을 위한 위안이나 오락 등 창조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것은 아도르노가 말하는 문화산업(cultural industry)과 직결되는 것으로 매스미디어 확립 문제의 차원에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Ⅲ. 복식과 대중문화

대중문화의 한국적 기원을 찾아보면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으나<sup>25)</sup> 복식 문화 속에서 대중문화가 논의의 대상으로 인자된 것은 산업화가 가속화 되던 1960년대 쯤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방후부터 1969년까지를 대중문화의 도입기라 보고 그 이후 각 10년 마다를 기준으로 하여 복식과 대중문화의 접합관계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1. 도입기 (1945~1969)

23) 원우현, '개도국의 대중문화' 「월간조선」, 서울 : 조선일보사, 1980. 12. p. 246.

24) 이강수, 강현두, 한국 대중문화 정책에 대한 고찰, 「한국의 사회와 문화」,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p. 168.

25) 유선영, 한국 대중문화의 근대적 구성과정에 대한 연구, 고대 박사학위 논문, 1992.

8·15 해방과 6·25 사변은 인적·물적 교류를 가속화시켜 많은 나라의 문물과 문화가 쏟아져 들어왔으며, 특히 해방 후의 미군복, 전쟁후의 미국의 원조와 차관에 의존하는 가운데 친미적 사회 분위기가 조성된 시기였다. 1960년대 초 우리 사회가 대중 사회인가 아닌가, 혹은 대중 문화 현상이 우리에게 도래했는가 아닌가 하는 논쟁들이 활발하게 벌어졌다.<sup>26)</sup> 1960년대의 대중잡지의 증가<sup>27)</sup>, 텔레비전의 등장, 그리고 영화와 라디오의 성장 등을 그 징후로 삼으면서 대중 문화 현상이 이 땅에도 등장했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고 보는 학자들간의 논쟁이 있었다. 지금은 단순히 보이기까지 한 이 논쟁들은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문화변동들을 우려하면서 생긴 것이다. 특히, 미국식 대중문화의 확산을 학문적으로 어떻게 설명해 낼 것인가 하는 다분히 문화 민족주의적 색채도 띠고 있었다.

개화기 이후 서구와의 직·간접적인 문화접촉으로 양장이 소개되어 오다가 8·15해방을 계기로 양장차림을 한 해외동포가 귀국하고, 외국과의 빈번한 교류현상이 일어남으로써 사회의 분위기가 친미화되어 양장 착용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점차 양장이 우세해져 갔다. 이러한 결과로 한복과 양장이 혼용되어 착용되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한복 저고리에 몸배, 또는 한복치마에 스웨터나 블라우스를 착용하기도 하였고, 구두 속에 버선을 신기도 하였다. 한복을 입고 하이힐을 신은 모습은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으나 그 당시에는 꼴불견으로 취급되기도 하였다. 또한 한복에 퍼머넨트 머리 모양을 하기도 하고, 코트가 등장하면서 부터는 한복의 겹옷으로 두루마기 대신 코트를 착용하였으며, 한복에 양산, 핸드백, 장갑, 스타킹 등을 착용하기도 하였으나 아무런 어색함이 없이 혼용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 당시에는 한복차림도 아니고 양복차림도 아닌 모습이 나타났다.<sup>28)</sup>

해방과 전쟁으로 인한 혼란, 해외 동포의 대거 귀국, 미국 등지로 부터 수송된 구호품, 미군의 주둔에 따른 군수물자 등 문화적·경제적 상황이 복식의 대중적 문화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된 시기인 것이다. 또한 6·25사변 후 한국에 막대하게 수입되기 시작한 외국영화는 여성의 양장화에 박차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에는 맹목적인 유행발생의 근원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방종과 사치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었다.<sup>29)</sup> 6·25 당시 「애수」 등의 영화에서 소개되었던 트렌치 코트(trench coat), 「무덤고 긴 여름밤」에서 히로인이 입었던 우단이나 비로도, 울저지의 칼라가 장식된 단색의 드레스, 그리고 「로마의 휴일」에서 오드리헵번의 더블 스포츠 칼라에 더블 투 어튼 상의, 폭 넓은 플레어 스커트에 앞의 머리를 가리는 짧은 머리 등은 유행을 추종하는 신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누렸다. 이러한 영향은 국내에 유행하기는 하였으나 극히 일부 계층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며, 그나마 국내에서 유행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렸다. 또한 당시 한국 여성들 사이에는 외국 영화의 영향으로 어색한 서구식 화장이 계속 유행했는데 대부분의 화장품이 외제로, 미군기지의 P. X. 를 통해 유출되는 외제 화장품과 밀수품이 홍수처럼 밀려와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sup>30)</sup> 이와 같이 많은 여성들은 자기의 개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무슨 영화에서 누가 입었던 것이고 서구 여성을 사이에 어떤

26) 강현두, 대중문화론, 서울:나남, 1987, pp. 9-13.

27) 대표적인 여성지로서 「여성계」(1953. 12), 「女苑」(1954. 10)등의 창간되어 생활문화의 창조와 보급에 이바지 하였고, 뒤이어 원색지면이 대폭 늘어난 「주부생활」(1965. 4), 「여성동아」(1967. 11), 「여성중앙」(1970. 1)이 창간되어 '읽는 잡지'에서 벗어나 '보는 잡지'를 지향하여 큰 선봉을 일으켰다.

28) 박길순, 현대 여성복식의 발달에 미친 요인 분석,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pp. 107-108

29) 김수복, "몸가짐 옷차림의 변화" 「여원」 1965년 8월호, p. 178.

30) 박길순, 앞의 책, pp. 107-108.

것이 유행하였던 바로 그 차림을 추종하였던 것이다.

## 2. 1970년대

1970년대로 넘어서면서 대중 문화의 존재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그것의 효과에 대한 논의들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대중 매체는 부정적인 존재, 부정적 대중 문화의 생산자로 비추어지고 이데올로기의 생산자, 저급 문화의 확산자, 그리고 외래 문화의 촉매제로 여겨졌다. 대중 매체와 대중 문화가 큰 구분없이 논의되고 이들 모두에게 집중적인 포화가 쏟아졌다. 이 시대에 대중 문화가 대체로 저급 문화 혹은 저급 매체인 대중 매체의 사생아쯤으로 평가받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던지도 모른다. 대중 문화는 건전한 문화를 침해하고 더욱이 우리의 고유 문화 - '민족 문화' 라고 불리던 문화- 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 나라의 대중 문화는 대중 문화에 대한 국가의 이해, 관여 정도에 따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 준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초까지 근대화를 위한 문화적 서구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대중 매체들이 서구적인 모습의 대중 문화물을 쏟아 내도록 유도했다. 팝 뮤직 가수들의 팝송(pop song)과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 온 블루진, 즉 청바지는 1970년대 대학생들의 재복이 되다시피 하였고 통기타와 함께 젊음을 지향하는 청년문화의 외적 표현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1966년 가수 윤복희에 의해 국내 소개된 미니스커트는 서양보다 늦게 등장하였으나 선풍적인 인기와 함께 급속도로 유행 보급되었다. 1968년부터 점점 짧아지기 시작한 미니스커트는 1971년에는 무릎 위 30cm 이상까지 올라간 대담한 초 미니 스커트가 되자 풍속사범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며 핫팬츠도 미년에 못지 않게 크게 유행하기도 하였다.<sup>31)</sup>

이와 같은 1970년대 대학 문화, 즉 청년 문화도 저급한 외래 문화의 모방쯤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논의는 조금만 각도를 달리해 들여다보면 상당한 반박의 여지가 있다. 기존의 전통에 대한 무조건적인 향수도 경계해야 하고, 새로운 문화의 등장에 대한 무조건적 배격 또한 재고될 필요가 있다. 문화는 전통과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전통이 바로 문화와 동일시되지는 않는다. 1970년대의 청년 문화를 보면 예전의 전통 문화와는 많은 부분이 달랐다. 기존의 정치, 사회, 문화적인 질서에 도전하는 요소들을 많이 지니고 있었다. 미국의 청년 문화 혹은 히피 문화가 우리의 땅에서는 청년 문화로 자리잡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 독재, 비민주적인 사회 등 기존의 질서에 대한 불만이나 도전을 표하기도 했다. 미국식 문화를 통해 단순히 미국을 닮는 것이 아닌 미국 문화의 한국화라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새로운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대중 문화를 '상업 문화=미국화된 문화' 라고만 치부할 경우 좀더 정교한 분석을 어렵게 만들 여지가 있고, 때문에 이러한 정의법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서구적인 형태의 대중 문화물은 독재를 강화하는 1973년 유신 이후 한동안 서리를 맞게 된다. 즉, 자주 경제, 자주 국방을 내세우며 정치적인 독재를 위한 권위주의적인 요소를 강조할 필요성이 생겼고, 대중 문화 속에 권위주의적인 유희·윤리 규범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70년대 초반의 서구적인 형태의 대중 문화를 주도하던 연예인과 그들의 문화적 생산물은 비윤리적이며 반민족적인 것으로 규정되고 고통받게 된다.<sup>32)</sup> 장발이나 대마

31) 엄소희, 청소년 하위문화에 나타난 대중음악과 복식에 대한 연구, 『服飾』, 한국복식학회, 26호, 1996, pp. 104-105.

32) 앞의 책, pp. 104-105.

초 같은 혐의로 그들의 활동이 위축받게 되었다. 1970년대 후반쯤 조직된 대중 문화 정화운동으로 외국식의 장발 연예인들은 출연 금지를 당했다. 또한, '바니 걸스'라는 여성 듀엣은 '토끼 소녀'로 개명해야 연예계 생활을 할 수 있는 등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일들이 이 당시 벌어졌다. 대중 문화가 대중들에게 외국 선호를 부추기거나 정체성을 잃게 하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한 탓이다.<sup>33)</sup> 서구에서 유입되는 문화도 생산되고 소비되는 역사적 상황, 조건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3. 1980년대

1980년대는 분명 '이데올로기'의 시대였다. 대중 문화에 대한 많은 논의들은 대중 매체와 대중 문화의 계급성에 집착했다. 대중 매체와 대중 문화는 지배 계급의 지배를 공고히 하는 계도로 여겨졌다. 그리고 저항 의식을 심어 줄 가능성을 지닌 '민중 문화'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1980년대의 대중 문화에 대한 관심을 대별하면 '지배 문화론'과 '소비 문화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배 문화론은 대중 문화가 지배 계급의 도구라고 파악한다. 여기서 대중 문화는 지배 계급에 경제적 이익을 안겨 주는 '상품'이면서 지배 계급의 이념을 전해 주는 도구적 문화의 성격을 띤다. 물론 이러한 대중 문화는 대중 매체에 의해 주로 생산되며 때로는 정부에서 주도한 문화 활동에 의해 생산된 관계성 문화도 포함된다.<sup>34)</sup>

1980년대 초에 등장한 군사 정권은 정치적인 강압을 내세우면서도 문화적으로 상당히 유희적인 제스처를 보였다. 통금을 해제하고 중고생의 교복을 자율화하며 컬러 텔레비전 방송을 실시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민족 문화 창달을 내세우면서 기존의 양반 문화를 민족 문화로 내세우던 것에서 방향을 전환, 민속 문화를 민족 문화로 규정짓는 작업을 한다. 그러한 분위기는 복식에도 영향을 주어 예복용 한복, 개량한복 등 민속복이 붐을 이루게 된다. "...팔십년대부터는 한복의 사다리꼴화, 곧 에이 라인화가 시도되었고, 온 세계에 유행하게 된 헐렁한 "가분수" 옷 바람이 불어와 이즈음의 화려하고 풍성한 "개량한복"이 등장하게 되었다. 고구려 시대의 저고리와 양장의 플레어 스커트를 연결한 듯한 모양의 그 개량한복이라는 것 말이다..."<sup>35)</sup> 또한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을 계기로 새로운 태극패션이 등장하기도 하였다.<sup>36)</sup> 민속 씨름이나 마당놀이라는 행사를 통해 끊임없이 민족의 우수성, 새로운 역사적 사명, '좌경화된' 세력의 분쇄를 외치며 신군부는 '민족 문화'와 그를 통한 다른 내용들의 접합을 통해서 자신의 정통성을 세우려고 했다. 운동권에서는 반대로 '민족 문화'와 그를 통한 또 다른 내용들의 접합을 통해서 군사 정권의 비정당성과 비민주성을 드러내려 했다. 또한 정부의 개방화 정책에 따라 의류상품 도입이 시작된 1979년부터 1983년까지 국내의 33개 업체가 수입한 섬유류 및 신변용품의 외국 유명 상표는 모두 49종으로 유명상표의 도입이 부쩍 늘어났다. '피에르 가르맹', '크리스찬 디올', '입생로랑' 등 전통있는 유명상표는 물론 낯설은 상표들도 다루어 도

33) 원용진, 앞의 책, p. 20.

34) 여기서 관계성 문화라 함은 전통문화 등과 같이 철저하게 만들어져서 보급된 조작성 전통문화를 가르킨다. 특히 1980년대는 이러한 문화 현상들이 두드러져 보이는데, 이러한 논의들은 문화 운동 진영에서 많이 행해진다.

35) 신경관, "한복과 '개량' 한복 - 위기냐, 움보냐? -" <생이 깊은 물>, 1991. 3. pp. 157-158.

36) 조선일보, 1986. 9. 7(8).

입되었다.<sup>37)</sup> ‘바싸야 좋고 고급’<sup>38)</sup> 인 것으로 아는 소비자들의 그릇된 소비성향은 기업체로 하여금 외제 복지를 사용하도록 하여 기성복의 가격을 터무니 없이 높여 놓았다.<sup>39)</sup> 해외 유명 고급상품의 수입의류가 국산 경쟁상품의 2~4배가 넘는 파격적인 가격에도 불구하고 소비풍조를 타고 일부 부유층 소비자들로부터 소비와 허영에 사로잡힌 소비계층에까지 넓혀져 감으로써 백화점마다 수입의류 코너가 증설되는 현상이 나타났다.<sup>40)</sup> 이러한 현상으로 해외 유명상품을 모방한 가짜 외제품이 국내 시장에 범람하는 현상도 나타났는데 ‘바싸야 잘 팔린다’는 잘못된 소비의식을 역으로 악용해 국산품이 최고 10배나 되는 고가의 외제품으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소동까지 일어났다.<sup>41)</sup>

‘지배 문화론’과 ‘소비 문화론’은 대중 문화를 부정한다는 의미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그 대안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지배 문화론의 대안은 민중 문화와 같이 계급적인 것에 있는데 반해, 소비 문화론의 대안은 여전히 대중 문화였다. 즉, 현재의 대중 문화에서 변형된 모습으로서의 대중 문화를 대안으로 내세운 셈이다. 지금의 대중 문화를 불완전하고 불순하며 저질스러운 문화로 파악하고, 비판과 교육 등을 통해서 미적으로 완전하며 도덕적인 문화로 만들자는 주장이다.<sup>42)</sup>

소비는 이제 사회적 권력을 나타내거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중요한 변인으로 손꼽힐 만큼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개념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만들며 어떤 공장에서 일하는가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는 대신 무엇을 소비하느냐에 따라 정체성이 정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같은 외투라 하더라도 밉크, 무스탕, 모직코트는 서로 다른 의미를 만들어 내고 있다. 외투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밉크와 모직코트가 만들어 내는 의미는 다른 것이다. 무엇을 소비하느냐가 그 소비 주체의 지위와 능력을 표현해 준다. 소비란 의미 생성이라는 문화적 측면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1980년대는 소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한 시기인 것이다. 소비는 본능적이고 물리적인 영역을 넘어서 상징적이고 문화적인 영역으로 연구되어야 할 부분인 것이다.

#### 4. 1990년대

1990년대의 대중 문화 연구자들은 다른 양상의 문화 논의를 펼친다. 대중 문화는 사회의 적이라는 혐의를 걷어 내고 ‘자세히 들여다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시선을 정리했다. 이른바 신세대 문화론 등에서 시작된 ‘대중 문화 자세히 들여다보기’는 대중 문화에 대한 담론이 쏟아져 나오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1970~80년대의 양적인 경제 발전의 결실을 누리는 ‘신세대’와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언론들이 먼저 호기심 어린 관심을 표명했다. ‘오렌지족’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던 언론 중심의 논의는 이어 신세대 문화라는 학문적 담론으로 이어졌다. 1980년대 ‘지배 문화론’을 논하던 학자들도, ‘소비 문화론’을 펴던 학자들도 조금씩 자세를 바꾸고 대중 문화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1980년대 말 젊은 소비층에 의한 대중 문화 소비를 비판적이며 자조적으로 바라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1990년대 들어 국제화 혹은 세계화 등과 맞물린

37) 박길순, 앞의 책, p. 235.

38) 동아일보, 1982. 10. 28.

39) 동아일보, 1986. 6. 28.

40) 조선일보, 1988. 10. 13.

41) 동아일보, 1980. 3. 22.

42) 원용진, 앞의 책, p. 23.

신세대 문화의 진취적인 성향, 혹은 그 안에 담긴 많은 사회적 의미들에 대한 새로운 평가들이 쏟아졌다.

아울러 지금까지 소비를 생산의 끝이라고 보던 시각에서 탈피하여 소비를 새로운 생산, 즉 의미의 생산으로 보려는 노력들이 등장했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1980년대 이후 서구에서 등장하는 후기 구조주의나 포스트 모더니즘 등의 문화론 혹은 인식론에 도움받은 바가 크다. 고급 문화/대중 문화, 물질/문화, 소비/생산, 텍스트/독해 등의 경계를 허무는 데 많은 성찰을 주었던 새로운 사조들에 힘입어 소비에 대한 분석을 새롭게 하는 노력들이 쏟아져 나왔다.

43)

물질 상품은 소비하고 이미지 상품을 소비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 찢어진 청바지 입기는 물질적 소비에 속하기도 하지만 서구 패션에 대한 발빠른 적용을 나타내거나 기성 가치관에 대한 반발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찢어진 청바지를 상징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서태지 음악이나 설운도 음악을 소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각 복식의 소비를 통해서 '서태지 세대'에 해당하는 의미나 'H.O.T 세대'에 해당하는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결국 대중 문화의 영역은 물질 상품의 소비, 이미지 상품의 소비 모두를 포함한다. 즉,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대중 문화 영역 안으로 포함된 셈이다. 소비는 적극적으로 대중 문화에 참가하는 것이며 아울러 이는 의미를 생산하는 의미화의 과정이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생산 영역만이 생산을 전담하지는 않는다. 소비의 영역도 의미 생산이라는 중요한 부분을 맡게 되었다. 소비에 대한 새로운 해석, 즉 생산적 소비 (prosumption)란 합성어는 현대 사회에서의 소비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다. 소비의 영역인 대중 문화는 소비 개념의 부상과 함께 새롭게 인식되고 들여다볼 만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sup>44)</sup> 특히 1990년대 들어, 대중 문화를 우리들의 문화라고 여기게 된 배경에는 대중 문화 산업의 폭발적인 증대 현상이 도사리고 있다. 이제 우리의 일상 생활은 대중 문화 산업의 생산물을 통해서만 구성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것은 대중 문화 산업의 확장과 그를 필요로 하는 대중 문화 수용자층에서의 필요가 서로 어우러져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인구학적으로 보아 대중 문화물을 가장 왕성하게 소비하는 세대는 10대와 20대다. 이들은 약 30여 년에 걸친 양적인 경제 성장의 결실을 거두는 세대에 속한다. 부모들의 경제적 윤택과 적은 수의 형제 때문에 상당한 소비 잠재력을 지닌 세대로 등장했다. 거기에는 10대의 경우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입시 위주 교육의 모순, 거기에서 벗어나 탈출구를 찾으려는 노력은 대중 문화와 연결된다. 물론 많은 이들은 이들을 '오빠 부대'나 '백백이 부대'로 비하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대중 문화를 통해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찾는다. 즉, 다른 연령대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대중 문화를 통해서 찾아 내는 것이다. 문화적 차이를 통해 10대라는 정체성을 만들어 내고 그 안에서 자신들만의 의미,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생산한다. 20대도 마찬가지다. 청소년과는 다른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있고, 보다 세련된 형태의 문화적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문화물을 찾게 되고 그를 통해 의미를 만들게 된다. 대중 문화 산업은 그들의 구미에 맞는 상품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그들의 고민과 외로움 등을 상품화시켜 버린다. 여기에

43) 앞의 책, p. 23.

44) 앞의 책, p. 35.



30대와 40대도 능동적으로 대중 문화물과 관계를 맺는다. 그들도 이미 1960~70년대를 통해서 청년 문화라는, 당시는 새로운 대중 문화물을 만난 기억들을 지니고 있다. 지금의 서태지나 김건모와는 다르지만 송창식, 이장희 그리고 고영수 등을 즐겼던 기억들을 지니고 있다. 문화 산업은 그들의 기억마저도 잘 포장해서 향수 상품으로 만들어 버린다.<sup>45)</sup>

연령별 대신 다른 사회 범주로 구분하더라도 그들이 대중 문화를 즐기고 있으며, 그들의 일상 안으로 대중 문화가 들어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 이전 시대와의 차이는 문화적 소비의 차별화가 두드러지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일괄적인 문화 향유가 아닌 나이, 성별 등에 따른 차별적 향유가 두드러진다. 이는 사회적 분화를 획책하는 문화 자본의 논리로만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다. 문화 소비자들이 끊임없이 차이를 추구하고 그 차이가 상품화될 수 있음을 문화 산업이 간파하는 등의 복합적 산물인 것이다. 그 차이를 내는 방식이 대중 문화를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 되며, 그것이 많은 사회 집단의 생활이며 표현 근거가 되는 복식문화의 연구와 연결될 때는 그 중요성이 더해진다고 할 수 있겠다.

#### IV. 복식 문화의 연구 방법

문화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많은 서구 문화론들이 있으나 대중문화와 관련한 한국의 복식 문화현상을 논의하기 위해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따라서 우리의 역사적 맥락을 파악하여 우리 현실과의 연관성을 따져보고 그에 알맞는 방법론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 1. 문화이론의 종합적 모델법

대중문화 분석에 대한 논의와 대중문화와 관련한 복식 문화 현상의 변화는 서로 독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문화에 대한 이론과 문화적 현실과의 대화적인(dialogical) 관계에서 복식 문화 분석의 현 단계를 평가할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 문화론, 문화주의 문화론, 구조주의 문화론 등 많은 문화 이론들은 자본주의 국가의 형태를 모두 반동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국가의 정책에 대한 비판 분석에 기여했던 것들이다. 그러나 최근 문화 연구안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움직임들은 정책적인 논의들이 문화 연구들과 융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문화분석 안의 많은 논의들에서는 국가라는 개념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국가 혹은 정부의 문화적 행정을 단순히 이데올로기적인 면에서 다루는 시도를 넘어서서 많은 권력 행사가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포착해 낸다.<sup>4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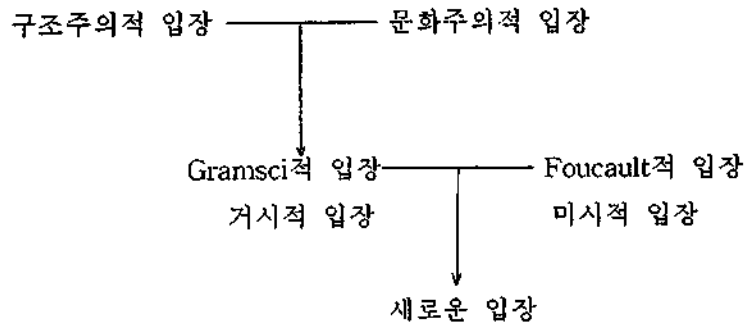
Bennett은 많은 문화이론의 종합을 통해서 이를 설명하고 있다. 먼저 문화주의와 구조주의의 합성에 대해서 그람시(Gramsci, A.)적인 해석으로 합성을 취한다. 이는 문화 연구가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에 대해서 동의함을 의미한다. 그 다음으로 문화 연구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분석과 후기 구조주의에서 찾을 수 있는 미시 권력의 정치학을 합성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일련의 연구들에서 이를 두고 푸코(Foucault)와 그람시의 합성이라는

45) 앞의 책, p. 26.

46) T. Bennett, "Putting Policy into Cultural Studies," in L. Grossberg et al. (eds), Cultural Studies, New York & London : Routledge, 1992, pp. 23-37.

말을 사용한다.<sup>47)</sup> 그 합성을 통해서 그람시를 중심으로 한 문화론자들의 일종의 국가 중심주의(statism)와 푸코의 무정부주의의 중간 자세를 취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의 종합을 통해서 국가라는 개념을 어떻게 다시 정의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후기 구조주의적인 개념에서 국가는 항상 다스림(government)의 주체로 등장한다. 푸코의 논의에서 보듯이 국가의 탄생과 권력/지식 복합의 형성이 일치하였다. 국가의 영역은 인간의 이데올로기를 점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의 감성이나 몸까지 차지하고 통제하는 데까지 미친다. 이는 이데올로기 중심의 일반적인 마르크스주의자의 국가론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국가의 영역이 대중 문화의 모든 면, 즉 우리가 보고 듣고 즐기고 숨쉬는 공간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분명 국가의 대중 문화에의 간여에 대한 논의의 폭을 넓혀 주는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람시적인 역사성의 강조와 푸코적인 국가 영역의 확대를 종합함으로써 우리는 박물관, 백화점, 거리 등이 내보이는 문화적 전략에까지 이르는 논의를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림 1> 문화적 테크놀로지에 대한 비판

기존의 문화론들은 어떠한 제도적인 환경을 배경으로 한 문화적인 기술로 대중들을 다스리고 있는지에 대한 뚜렷한 분석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복식 문화 연구 역시, 의문시되지 않은 문제를 제기하고, 은유 속에 숨겨진 권력의 합리화를 캐고 들어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넘어선 현실을 연구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중 문화와 관련된 복식문화의 전략적 해석은 '억압된 것들을 되돌려 놓는 것(return of the repressed)'이다. 그 동안 대중 문화 안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것들, 주변적인 것들, 국지적인 것들, 비연속적인 것들,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 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그 안에서의 저항과 투쟁을 찾아 내고 기록하는 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중 문화론과 관련된 복식문화와 연구의 방법론이라 하겠다.

## 2. 민속지학(ethnography)적 접근법

문화 연구 방법 중 논의되어야 할 이론과 방법 중 기어츠(C. Geertz)의 문화에 대한 인류학적인 접근법이 있다. 문화 분석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이 문화속에서 의미를 추구하는 작업

47) '푸코를 통한 그람시의 이해 방법'과 '그람시를 통한 푸코의 이해 방법'은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 결론적으로 취하려 하는 방법은 그람시를 통한 푸코의 이해 방법임을 밝힌다. (T. Bennett, "The Exhibitionary Complex," *New Formations*, 4, 1988, pp. 73~102. 혹은 Fiske, 1993. 참고)

의 단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상징을 찾아 의미를 찾아내는 작업이다. 즉 상징이란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상징에 담긴 깊은 뜻을 찾아내고, 그 안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 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기어츠(C. Geertz)의 문화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법은 단순히 상징을 찾는 것 이상으로 즉, 상징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해(interpretation)를 다시 이해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펑크풍 스타일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은 펑크족이다. 그것은 단순히 펑크 스타일의 의미나 펑크족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펑크 스타일이나 펑크족을 중심으로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이는 문화를 하나의 텍스트로 보고 텍스트 안에 숨어있는 고정된 의미나 사실을 발견하는 것과는 거리를 둔다. 오히려 문화안에서 사람들이 텍스트인 문화를 어떻게 읽어 내고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두고 이해하게 한다. 이를 테면 사람들의 문화 텍스트 이해에 대한 이해가 바로 기어츠의 해석학적인 인류학인 것이다.

이는 기존의 문화를 연구하는 접근법과는 상당한 차이를 두는 것으로 법칙이나 문화구조에 관심을 두는 구조주의 인류학과는 달리 구조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해나 해석에 관심을 둬으로써 실천에 대한 논의를 강조한다. 그러나 실천에 대한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구조와 실천 모두를 살펴보려는 매우 대담한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천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연구 방법으로 민속지학(ethnography)적 접근방식이 있다. 인류학에서 발전되어 온 민속지학은 현장속으로 들어가 직접적인 관찰과 접촉을 통해 문화적 맥락 속에서의 주체의 실천을 묘사하고 해석하려는 시도이다. 대중과 직접 접촉하여 그들의 다양한 문화 수용행위를 관찰하고 추적하거나 인터뷰, 집단토론, 자기보고서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비교 검토함으로써 분석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민속지학의 강점 가운데 하나이다.

홀(S. Hall)과 제퍼슨(T. Jefferson)은 영국의 청년 하위문화에 관한 연구에서 이론적 개념을 다룬 부분과 함께 실제 하위문화의 다양한 형태를 민속지학적 방법을 통해 연구, 수록하고 있다.<sup>48)</sup> 연구자들은 주로 하위문화 집단의 가치와 삶의 방식이 마약이나 음악, 스타일과 같은 주체적 경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연구 관심으로 하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 하위문화를 구현하고 있는 젊은이들과의 인터뷰나 참여관찰, 혹은 자기 진술서의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민속지학과 같은 질적 접근방식의 강점을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의 다양한 측면의 연관관계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대중이 미디어를 수용하는 행위는 일상생활의 폭넓은 실천들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가 의미를 발생시키는 과정을 온건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안에 위치해 있는 맥락 속에서 연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른바 통계적인 방법을 통한 양적인 접근은 바로 이 점에서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는데 그것은 행위의 단위들을 그것이 의미를 가지는 맥락으로 부터 분리시키는 성격을 불가피하게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3. 역사적인 접근법

문화적 영역이 시장의 영역과 겹쳐 있음은 대중문화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바탕이 시장이라

48) Hall & Jefferson, (eds), Resistance Through Rituals, CCCS, Univ. of Birminham, 1976.

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 누가 문화 산업을 소유하고 있고, 또 운영하고 있는가, 문화 산업이 다른 산업과 어떤 연관을 지니고 있는가, 시장이 다국적 기업에 얼마만큼 좌우되고 있는가 등과 같은 논의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란 결코 보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다. 국제 정치, 경제의 추세와 한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 간의 대립 등을 통해서 각 사회는 특수한 모습들을 드러내게 마련이다. 1960년대 한국의 자본주의 모습과 1970년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대중 문화와 관련된 복식도 그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한 특수성으로 이해되고 설명될 필요가 있다. 대중문화를 분석하는 데 특수성을 감안할 수 있는 역사적인 접근법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역사적 접근법의 중요성은 국가의 정책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대중 복식 문화 형성에도 영향을 끼친다.

특히 식민의 아픈 경험을 지니고 있는 나라들에서 그러한 역사적인 블록의 변화 모습들을 찾을 수 있다.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시기에 반식민주의 활동을 위해서 역사적인 블록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나라가 독립한 후 눈부신 산업 발전을 이룩했다면, 기존의 역사적인 블록은 다른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단순히 민족 대 반민족이라는 구도에서 벗어나게 될 수도 있다. 정형화된 자본주의의 모습을 갖추면서 계급을 축으로 블록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관료주의와 비민주주의적 사회 조직 등과의 결합을 통해서 블록이 형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에 대한 저항도 일정한 블록의 모습을 띠게 될 터인데, 단순히 계급이나 민족을 축으로 하기보다는 모든 사회적 행위에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창조적 역할을 요구하면서 저항의 블록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복식 문화 연구에 역사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러한 문화의 효과성으로 혹은 간접적인 원인으로서의 블록 형성의 변화를 추적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신관념론자인 딜레이(W. Dilthey)는 역사적인 소재의 경험적 지식이 가능하다고 판단, 역사적 접근 방법론을 연구하였다. 역사적 소재란 곧 성질상 문화적이라는 데 주안점을 두어 역사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문화적 역사, 즉 정신사(Geistes-geschichte)에 대한 지식의 성격을 규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신(문화)과학은 <의미>를 다루고 그 사유형식은 <이해>이다. 이해란 의미와 의미를 서로 연결짓는 일이고 대상을 직관을 통해 즉각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정신(문화)과학이 의미의 배열형식을 통해 해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신칸트주의자 리케르트(H. Rickert)는 역사학이 소속한 학문분과들의 특별한 위치들에 대하여 핵심적인 중요성을 지니는 것은 개별적 사상들(events) 또는 사실들을 묘사·서술하는 기술적 절차(idiographic)절차로서 지식대상의 <가치 유관적 합성>이다 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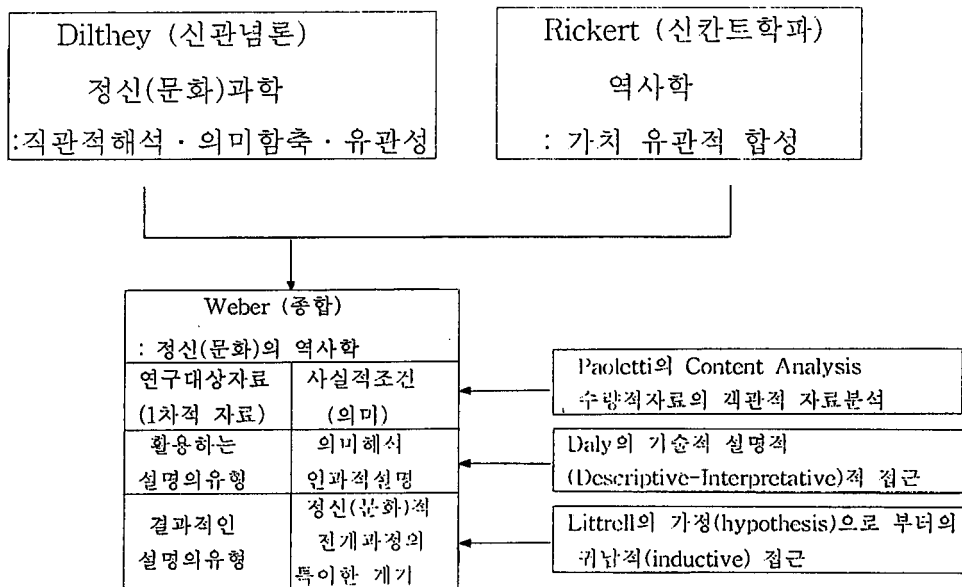
딜레이(Dilthey)와 리케르트(Rickert)의 방법론의 종합을 시도<sup>49)</sup> 한 웨버(M. Weber)는 우선 <직접적 관찰적 이해>와 <설명적 이해>로 구분하는 데서 출발한다. 직접적 관찰적 이해란 대상을 즉각적으로 지각하고 알아차리는(recognize) 과정에 국한된다. 이에 반해서 인간 행위의 이해는 설명적인 이해를 요하는데, 그것은 행위를 동기(이유, 의도 등)에 입각하여 설

49) Wilhelm Dilthey(1833~1911)는 Hegel류의 신관념론자로서, 학문분야를 자연(물리)과학과 정신(문화)과학으로 구분하였으며 신칸트주의자 Heinrich Rickert(1863-1936)는 학문분야를 연구대상과 내용에 주력한 Dilthey식 구분에 수정을 가하고 학문분야를 단지 역사와 과학으로 구분하였다. Max Weber(1864-1920)는 Dilthey와 Rickert의 견해를 종합하여 학문분과를 정신(문화)의 역사학, 정신(문화)의 과학, 자연과학, 자연사학으로 구분하였다.

(Frisby David, "Introduction to the English Translation", in Adorno et. al., The Positive Dispute in German Sociology, 1976 참고)

명한다는 뜻이다. 즉 정신(문화)의 역사학이 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과법칙이 아니라 어떤 현상의 전개과정의 특이한 계기들(sequences)을 묘사하는 일로 보았다.

웨이버(Weber)의 견해대로 한다면 복식문화의 연구는 정신(문화)의 역사학에 속하게 되며 이러한 접근방식은 리트렐(Littrell)의 주장과 일치한다. Littrell<sup>50)</sup>은 복식이 문화 속에서의 복식이란 맥락에서 더 통합적으로 연구될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그의 연구방법은 개인의 행동에 대한 설명과 해석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는 가정(hypothesis)과 제안점을 연구자가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귀납적(inductive)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류학 분야의 지배적인 분석적-실험적 관점(analytic-empirical)에 대해 델리(Daly)<sup>51)</sup>가 제안한 기술적-설명(descriptive-interpretative) 관점의 입장과 복식사의 연구방법으로써 언어적이거나 비언어적인 자료에서 수량적 자료를 얻어 객관적인 자료분석과 해석을 강조한 파올레티(Paoletti)<sup>52)</sup>의 내용분석법(content analysis) 등은 복식문화를 역사적으로 접근하기에 적절한 연구방법이라 하겠다.



<그림 2> 역사적 접근의 연구방법

따라서 웨버(Weber)의 방법론을 기초로 종합 적용하면 사실적 조건을 자료로 하여(수량적

50) Merry A. Littrell, "Social and Cultural Analysis of Clothing : Current Research and Methodological Sirection", 한국의류학회 1989년도 추계학술세미나 초대강연, (1989년 10월), p. 22.

51) M. Catherine Daly, "Use of the Ethnographic Approach As Interpretive Science Within The Field of Home Economics : Textile and Clothing as an Example", H.E.R.J., 12(3), (March 1984), p. 354-362.

52) Jo B. Paoletti, "Content Analysis : Its Application to the Study of the History of Costume", C. T.R. J., 1(1982), pp. 14-17.

자료의 객관적 자료분석이 되도록 한다.) 의미해석 및 인과적 설명을 실시하고(합축적 의미에 대한 기술적 설명적 접근을 한다.) 정신(문화)적 전개과정의 특이한 계기가 결과적 설명(가설로부터 귀납적으로 유추한다.)으로 나타내게 한다.

#### 4. 전통과 문화의 지속성에 대한 논의법

한국의 문화를 설명할 때 당연시되는 개념주의 하나가 바로 '문화변동'이다. 변동이라는 개념에는 전통문화단계에서 일제치하와 해방이후의 근대화 과정이라는 변동의 요인들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들에 입각해서 한국의 대중 문화를 설명하는 논의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문화 이식론을 구조 기능주의와 체계이론의 틀 속에서 접합시키는 근대화론이다.<sup>53)</sup>

이것은 근대화에 의해 적합성을 상실한 전통문화가 급격히 해체되었으며 이 공백 상황에서 선진 외래문화를 차용하게 되며 일정한 과도적 아노미 상태를 거쳐 차용된 외래문화가 적합성을 획득하게 되는 과정으로 문화변동을 설명할 수 있다. 즉 고유문화와 일관성, 체계성을 이루는 방향으로 문화적 통합이 이루어지고 중국에는 토착화됨으로 해서 새로운 문화전통으로 자리잡아 간다.<sup>54)</sup> 고 본다. 구조기능주의적 논의는 어느 면에서는 근대화와 외래문화 이식을 필연적인 역사과정으로 인식하며 나아가 전통문화와 외래문화간의 궁극적인 통합을 낙관한다는 점에서 뚜렷한 문제의식을 엿볼 수가 없다.

해방이후 미국이 일제를 물리치고 우리를 해방시켜준 해방군으로 받아들였으며 해방후의 미국화 과정이라는 대전제를 수용하고 나서 부터는 그러한 보편성속예의 편입이 자발적인 문화이식에 의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제국주의적 문화종속이었던가가 논의의 중심축을 이루었다. 한국의 외래문화 수용을 문화이식의 관점에서 서술한 것은 일찌기 무스(Phelix Moos)와 김경동, 김영모, 유재천의 주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무스(Phelix Moos)는 한국에 있어서 근대화를 문화 이식론의 입장에서 해석을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 대중문화의 이식양상을 제도적인 것으로 부터 일상생활 용품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지적하고 있다.<sup>55)</sup> 문화이식의 정의를 SSRC의 세미나에서 내린 정의를 토대로 살펴보면, 문화이식이 전파(diffusion)보다는 포괄적이라는 점을 제시하여 양자를 구분하였으며, 문화이식이란 들 또는 그 이상의 보다 자율적인 문화체제가 결합함으로써 일어나는 문화의 변동으로 규정될 수 있다.<sup>56)</sup> 라고 하였다. 해방후의 시점을 강조하는 한국의 대중문화는 결국 전통과의 단절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면에서는 기존의 논의가 대중문화의 생산 측면에 과도한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문화변동의 단절적 성격이 부각된 점도 있다. 그러나 생산과 동시에 수용의 차원 즉, 문화가 인간의 가슴과 의식, 정서구조에 자리하고 있으며 따라서 문화(복식을 포함한)의 변동과정은 단절만큼이나 지속의 관점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전통의 변화를 역사 지속성의 맥락에서 설명하는 실스(E. Shils)는 한 사회의 특정부분의 전통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서술함에 있어서 '역사의 지속' 개념을 고수하고 있다.<sup>57)</sup>

53) 유선영, 앞의 책, p. 21.

54) 임희섭, 한국의 사회변동과 문화변동, 서울 : 현암사, 1985, pp. 8-15.

55) Phelix Moos, 한국의 급속한 문화수용에 관한 고찰, 「한국의 전통과 변천」, 고려대학교 아세아 문제연구소, 1973, pp. 159-177.

56) R. L. Bee(1974), *Pattern and Processes*, The Free press, Macmillian Publishers, 1974, p. 96.

57) E. Shils(1992), *傳統: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김병서, 신현순 역, 서울:민음사, pp. 218-219.

한가지 요소의 변화가 전체 변화를 유도하기도 하며 삶의 공간에서 경험하게된 새로운 변화의 요소들이 전통적 의식을 거쳐 걸러짐으로써 변화는 일어나기도 한다. 결국 문화를 인간의 심층의식 혹은 정서나 가치의 문제로 인식하는 관점에서 보면 문화변동이라는 것은 기존의 깊은 의식과 정서구조에 의해 걸러지는 지속과 변화의 과정이다. 따라서 대중문화와 관련해 한국의 복식문화를 규정해 나가자면 제반 내적 외적 요인들의 규정을 받아, 복잡하고 급격하게 전개되어 가지만 그것이 어디까지나 전통적 가치, 의식, 기호를 내면화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받아들여지고 추구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문화는 언제나 과거의 흔적을 지니고 있으며 과거라는 토양속에 뿌리를 내린 것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토양은 물론 인간의 깊은 의식과 정서구조인 것이다.

## V. 결 론

복식은 대중매체를 포함한 대중문화와 관련이 있고 그가 속해 있는 경제적, 정치적인 제도들과도 관계를 맺고 있다. 결국 대중 문화속의 복식에 대한 논의는 그를 둘러싼 많은 사회적 제도들 그리고 역사적 환경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과거의 패션과 오늘의 패션이 변화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처해 있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1960년대 경제 개발 붐을 타고 전해졌던 외래 문화를 통한 복식문화는 1990년대 세계화를 바탕으로 전해지는 그것과는 그 모습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의미도 다르다. 그리고 그러한 과거를 바탕으로 하는 1990년대의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그동안 이루어졌던 대중문화 자체의 변화과정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는 대중문화와 관련하여 한국의 복식문화 연구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대중문화 속에서의 복식문화 현상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여러가지 대중문화 이론의 종합(푸코와 그람시의 합성)을 통한 새로운 입장에서 문화적 테크놀로지에 대한 비판을 적용한다.
2. 기어츠(C. Geertz)의 문화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법은 구조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해나 해석에 관심을 둬으로써 실천에 대한 논의를 강조한다. 이러한 접근 방법의 일종인 민속지학(ethnography)적 접근 방식을 적용한다. 이것은 현장속에서 직접적인 관찰과 접촉을 통해 주체의 실천을 묘사하고 해석하려는 시도이므로 특히 하위문화의 복식 연구에 유용할 것이다.
3. 대중문화와 관련한 복식 문화를 분석하는데 특수성을 감안할 수 있는 역사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하여 웨버(Weber)의 방법론을 적용하면 사실적 조건을 자료로 하여 의미해석 및 인과적 설명을 실시하고 정신(문화)적 전개과정의 특이한 계기가 결과적 설명으로 나타나게 한다.
4. 대중문화와 관련한 한국의 복식문화의 연구는 전통과 문화의 지속성에 바탕을 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의 대중문화와 관련한 논의가 세계적인 보편문화로서의 서구 대중문화의 이식으로 간주되었으며 대중문화의 생산측면에 과다한 노력이 경주되었다는 반성을 낳게 한다. 생산 측면에 대한 관심은 곧 상품문화의 생산 체계가 지닌 새로움, 과거와의 단절성을 부각시켰고 이를 이식론과 연결시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음도 부인할 수 없다.

문화 연구는 문화를 통해 어떻게 효과를 산출하고 그러한 효과가 어떻게 조직되고 사용되는지에 관심을 갖는 이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식 문화 연구에서도 중요한 것은 어떤 유용한 실천들에 의해서 그것이 어떻게 취해지고 사용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현실을 바꾸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든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가에 대한 의문뿐만 아니라, 그러한 실천들의 가능성에 관한 물음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대중문화와 관련한 복식의 연구는 우선 복식이 대중문화 속에서 어떻게 생산되면서 어떻게 소비되는가, 그런 다음 어떠한 의미를 생산해 내는가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명제가 구성된다. 이러한 연구 영역의 규정은 연구자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인가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를 도와 주게 된다. 또한 문화를 지속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연구방법은 문화를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의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시도이다. 이것은 문화연구가 다소 양적이거나 통계적인 분석의 엄밀함을 희생하더라도 현상의 양면, 깊은 곳에 자리한 근본적인 문제들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결국 문화는 인간의 다면성과 심층적 기반에 대한 고려없이, 그리고 전체사회를 배후에서 움직이는 힘, 즉 이념이나 원칙, 논리에 대한 탐구없이 현상 수준에서만 논의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1. 강현두, 대중문화론, 서울 : 나남, 1987a.
2. 강현두, 한국의 대중문화, 서울 : 나남, 1987b.
3. 김경동, 대중사회와 대중문화, [사상계], 서울 : 사상계사, 1968. 5월.
4. 김수복, "몸가짐 옷차림의 변화" [여원] 1965년 8월호.
5. 김영모, 한국문화와 권력구조, [사상계], 서울, 사상계사, 1968. 5월.
6. 박기성, 대중문화와 문화산업, 서울 : 평민사. 1992.
7. 박길순, 현대 여성복식의 발달에 미친 요인 분석,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8. 신경란, "한복과 '개량'한복 - 위기냐, 음모냐?" <샘이 깊은 물>, 1991. 3.
9. 엄소희, 청소년 하위문화에 나타난 대중음악과 복식에 대한 연구, 「服飾」, 한국복식학회 26호, · 원용진(1996), 대중문화의 패러다임, 서울 : 한나래. 1996.
10. 원우현, '개도국의 대중문화' [월간조선], 서울 : 조선일보사, 1980. 12.
11. 유선영, 한국 대중문화의 근대적 구성과정에 대한 연구, 고대 박사학위 논문. 1992.
12. 이강수, 강현두, 한국 대중문화 정책에 대한 고찰, [한국의 사회와 문화], 서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13. 이상희, 대중문화에 대한 문명 비판론적 연구, [한국의 사회와 문화], 서울 : 한국 정신문화 연구원. 1980.
14. 임희섭, 대중문화의 사회적 의미, [문학과 지성], 서울 : 일조각, 1975 여름(제6권 2호). 1975a.
15. 임희섭, 한국의 사회변동과 문화변동, 서울 : 현암사. 1985b.
16. [동아일보], 서울 : 동아일보사. 1980. 3. 22, 1982. 10. 28, 1986. 6. 28.



17. [조선일보], 서울 : 조선일보사. 1969. 8. 27, 1886. 9. 7, 1988. 10. 13.
18. [중앙일보], 서울 : 중앙일보사. 1975. 11. 24 -12. 24
19. A. Gramsci, *Selections from Prison Notebooks* (edited and translated by Q. Hoare & G. Nowell-Smith), London : Lawrence & Wishart. 1971.
20. E. Shils, 傳統: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김병서, 신현순 역, 서울:민음사. 1992.
21. Frisby David, "Introduction to the English Translation", in Adorno et. al., *The Positive Dispute in German Sociology*. 1976.
22. Gramsci, A. *Selections from Prison Notebooks* (edited and translated by Q. Hoare & G. Nowell-Smith). London: Lawrence & Wishart. 1971.
23. Hall, S. "Cultural Studies : Two Paradigms," in T. Bennett et al(eds.), *Culture, Ideology and Social Process : A Reader*, London : Open University Press. 1981.
24. Hall & Jefferson, (eds), *Resistance Through Rituals*, CCCS, Univ. of Birminham. 1976.
25. Michael Gurevitch, Tony Bennett, James Curran, and James Woolacott, *Culture, Society and the Media*, Methuen, London. 1982.
26. P. Bourdieu, *Distinction :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R. Nice (trans),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27. Phelix Moos, 한국의 급속한 문화수용에 관한 고찰, [한국의 전통과 변천], 고려대학교 아시아 문제연구소. 1973.
28. Raymond Williams, *Keywords*, London : Fontana. 1983.
29. R. L. Bee, *Pattern and Processes*, The Free press, Macmilliam Publishers. 1974.
30. Salvador Giner, *Mass Society*, Academic Press, Inc. N. Y. 1976.
31. T. Bennett. "Introduction : Popular Culture and the Turn to Gramsci," in T. Bennett et al. (eds), *Popular Culture and Social Relations*, Milton Keynes & Philadelphia : Open University Press, 1986a.
32. T. Bennett, "The Politics of 'the Popular' and Popular Culture", in T. Bennett, C. Mercer, & J. Woollacott (eds.), *Popular Culture and Social Relations*, Milton Keynes & Philadelphia : Open University Press. 1986b.
33. T. Bennett, "Putting Policy into Cultural Studies," in L. Grossberg et al. (eds), *Cultural Studies*, New York & London : Routledge. 1992.